

0903(토) 에스겔 33-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

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(33:21-22).

그 와중에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.

유다에 <남은 자>들은 땅에 관심을 했습니다(33:24).

본인들이 유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잔뜩 기대했습니다.

하나님은 언약백성과 거리가 먼 삶을 책망하십니다(33:25-26).

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을 것은 저주뿐입니다(33:27-29, 레26장).

<바벨론 포로>들도 하나님의 뜻,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

그저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하여 에스겔을 찾았습니다(33:30-33).

바라는 것은 <이익>뿐이었습니다(33:31, 히) 베퍼, 부당/폭력으로 얻은 이익)

<에돔>은 망한 이스라엘과 그 땅을 넘보았습니다(35:5,10,12).

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(35:15).

함락 이전에도 이후에도, 그들이 할 일은 <회개>입니다.

심판과 멸망에 대해 절망하거나 항변할 것이 아니라(33:10,17)

이제라도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(33:14).

악인이라도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 살아날 것입니다(33:15).

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(33:11,16).

“(36:25-27)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
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
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”

하나님은 <새 일>을 준비하십니다(36장).

참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먹이고 건지실 것입니다(34:11-16, 31).

<내 종 다윗>을 그들의 목자로 세우실 것이며(34:15,23-24),

화평의 언약으로 <평안>*하게 하실 것입니다(34:25-31).

이로써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.

(36:23,36,38) * (히) 베타흐, 안전, 34:25,27,28에 반복해서 쓰임

나는 생명의 길, 하나님 백성의 길에 서 있습니까?

악에서 돌이켜 떠났습니까? 성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이 되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에스겔 33-36장